

6·4 지방선거 확대경

현직 단체장 '조기 등판' 왜?

# 관권선거 처벌 강화·현역 프리미엄은 줄어

## 예비후보 등록 앞당겨

## 선거열기도 조기 점화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직 단체장들이 과거와 달리 직무가 정지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고 있어 주목된다.

2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강운태 광주시장에 이어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도 다음달 8일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 들 예정이었다.

광주지역 일부 구청장들도 빠르면 4월 중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 들 것으로 보여 내달부터 선거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호 남구청장은 내달 8일 예비후보 등록 뒤 공식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자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뛰어 들 예정이며, 노회용 동구청장과 김중식 서구청장은 내달 하순께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다. 다만, 선거관도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일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 과정없이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곧바로 후보자 등록을 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사뭇 다른 양상이다.

과거 현직 단체장들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선거일전 20일째 후보자 등록을 하곤 했다.

반면, 송광운 북구청장과 민형배 광산구

청장은 경선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조기 출마를 하는 것 보다는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는 5월15일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청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구청장들은 조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지만, 재선 구청장이 조기 출마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3선에 욕심을 부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비후보 등록 없이 곧바로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현직 단체장들이 과거와 달리 '조기 출마'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가 처벌 강화됨에 따라 자칫 구청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부 공무원들이 '관권 선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거 60일 전인 내달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면서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떨어진다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들의 경우 과거 최대한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애를 썼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처벌 등 공직선거법이 강화되면서 크게 현역 프리미엄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앞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신당 정강 첫머리 5·18 정신 담기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첫머리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뿐만 아니라 7·4남북공동성명까지도 정강·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추진단 산하 정강·정책분과위원회 소속 관계자는 24일 "정강정책분과는 큰 틀의 정강정책 내용에 합의하고 막바지 문구 수정을 진행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총회와 새정치연합의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거쳐 25일께 공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애초 5·18과 4·19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에서 정강·정책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민주당과 호남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거취를 바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영선 道 행정부지사 오늘 취임

김영선(57) 안진행정부 청사관리소장이 25일 오후 전남도 행정부지사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이로써 지난 2월20일 배움터 전 행정부지사가 목포시장에 출마하면서 퇴임한 후 한 달 넘게 비어있었던 행정부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김 신임 행정부지사는 광주일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전남도 기획관, 광주시 기획관리실장, 행정안전부 인력개발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 북한 24시간 감시 '글로벌호크'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초고도 무인정찰기(HUAV)인 글로벌호크 4대를 8800억원에 도입하는 구매계획안을 의결했다. 미국 노스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로 북한 전역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연립뉴스

## "목포, 고속철 르네상스시대 열겠다"

### 전남도지사 출마 선언 주승용 의원 공약 발표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시 을)이 24일 호남지역 철도 중심지인 목포의 '고속철 르네상스 개막' 등 전남지역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사가 되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남해안 고속철도, 경전선(광주~화순~보성~순천) 전철화,

목포~제주 해저터널, 목포~군산 서해안 고속철도 건설 등 5개 철도노선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목포를 미래 고속철도 허브도시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전남 관광산업이 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목포~제주 해저터널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였다. 주 의원은 "지금도 제



주가 반대하고 있으나 호남지역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가장 높게 나온 만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호남축을 반드시 연결해야 하며 내년 고시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여야 국회의원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우 노선과 관련해 논란이 일었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관련 "타당성 용역 결과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노선이 결정돼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알기쉬운 선거법 (5) 광주일보·광주선관위 공동캠페인

### 직접 통화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만 가능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전화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일반 선거구민은 선거운동기간(5월22일~선거일 전날) 중에만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예비후보자는 본인이 전화를 걸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후보자로 등록하면 전화를 이용해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당내 경선후보자는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이 참여하는 당내 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 이용 선거운동 내용 및 방법은=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또한, 컴퓨터가 자동으로 사전에 입력된 유권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유권자가 전화를 받으면 대기 중인 예비후보자가 유권자와 1대1로 직접 통화하는 시스템인 자동 다이얼링 기능을 이용하는 행위 ▲자신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으로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

은 후 직접 통화하는 행위 ▲직접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녹음물을 들려주는 방법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예비후보자 기호○번 ○○○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등을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통화의 범주에 포함돼 허용된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단순히 전화연결 역할만 하고 녹음물(예비후보자가 녹음한 것 포함)을 틀어 송신하는 방법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해 전화를 개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할 수 없다.

◇전화 이용 선거운동이 가능한 시간은=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할 수 없다. 이 또한 국민의 평온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후보자는 이를 꼭 준수해야 한다.

## "야전당·KTX 예산 확보 역량 집중해 달라"

### 강운태 시장, 선거 전 마지막 간부회의서 당부

강운태 광주시장이 6·4지방선거 전 마지막 간부회의에서 민선 5기 4년간 느낀 소회와 함께 차질없는 시정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간부회의에서 답답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민선 5기 4년 동안 모든 가치를 시민에 두고 최선을 다한 만큼 남은 기간도 (공직자) 여러분이 잘해 줄 것으로 믿고 잠시 자리를 비운다"며 "저와 인연을 맺고 함께 희망을 키워온 공직자 여러분과 150만 광주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다만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하니 (6·4)선거 이전에 진행될 5·18민주화운동 제34주년 기념행사가 걱정된다"며 "정치권과 협조를 통해 올 5월 이전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던 더 이상 국비지원이 안 될 것이고, 올 연말 KTX호남선(서울~광주간)사업이 끝나면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데, 오히려 국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시정 각 실과에서는 오는 5월 말까지 제출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규모가 올해(3조 1573억원)보다 더 커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끝으로 "민심은 천심이며, 시민이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것이고 짜증내면 못한 것"이라며 "요즘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보니 시정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자괴감이 들 정도다. 새 야구장도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광주만 국비 300억원을 가져왔는데 이를 대부분이 모른다. 거짓이나 과장이 아닌, 고생하고 노력해 일궈낸 성과만큼은 알려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강 시장은 25일 오전 10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시장 예비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며, 직무가 일시정지됨에 따라 오후 행정부시장이 시장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9P - 10/12/13층, 3세대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보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 53P - 9/13층, 2세대, 전체 올수리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보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로 339, 2001호

#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공동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권리분석 등 정보 제공